

UPASIKA PRAISED CONTENTS

- | | |
|----|---|
| 02 | 발행인 칼럼 이기향
불교르네상스Ⅲ의 꿈을 향해 피어나는 연꽃송이 |
| 04 | 불교와 여성 한주영
기후행동카드의 허와 실 |
| 06 |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이영희
영가 부부인 신씨와 봉은사 |
| 09 | 108인 기획 인터뷰 전영숙
나의 불교의 길: 재능보시와 알아차림 (손경수 안과 의사) |
| 12 | 현장스케치 정철재
재가여성불자의 아름다운 동행 |
| 16 | 특별활동보고 남혜경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고 행하는 여러분이 여성 붓다 |
| 20 |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최혜경
자연의 선물 연꽃 |
| 22 | 사무국 소식 |
| 25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29 | 회원 동정 |
| 30 | 재정동참 현황 |

우바이예찬

2024년 89호

[발행인] 이기향 [발행일] 2024년3월30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김보미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047)서울시종로구자하문로30길20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불교여성개발원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 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 이미지/이기향]

우주 허공에 펼쳐지는 보주들의 에너지.
'불교르네상스의꿈 Ⅲ'의 상징 심볼이다.



불교르네상스 III의 꿈을 향해 피어나는 연꽃송이

4월은 잔인한 달'이지만 제게는 참으로 눈부신 시간입니다. 마당 한 칸의 산수유가 노랗게 부풀어 터지다가 싶더니 우아한 목련이 어느새 만개하고, 이제는 출근길에 스치는 노오란 개나리가 무색할 정도로 온 서울이 벚꽃으로 환해졌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불교여성개발원에도 봄다께 공양 올리는 아름다운 연꽃이 하나, 둘 피어나 지혜의 광장을 향기롭게 합니다. 개발원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미래를 여는 K-여성불교 플랫폼

지난 3월 30일에는 친교를 나누며 개발원의 현안을 짚어보는 108인 워크숍이 제 11차 108인을 환영하는 행사를 겸해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많은 회원들로부터 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의적절하고 진행이 자연스러웠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와 봉사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개발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김애주고문께서는 개발원의 원장을 역임한 대선배로서 '미래를 여는 K-여성불교 플랫폼'이란 주제로 후배들을 위한 맞춤 강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24년 행보의 강점과 약점 분석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선명한 청사진을 제안해주셨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혜안을 거울삼아 정진해 나갈 것을 발원합니다.

거룩한 불사를 위한 33관음의 화현

워크숍의 핵심인 차수별 토론과 발표 시간에는 개발원의 모토인 수행과 봉사에 관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11차 새내기 108인들의 비전 발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석자 33인은 즉석 모금액 33만원을 전달하면서 '이 작은 겨자씨가 발아하여 1080인 천수관음으로 나투사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의 주요 목표인 광장건립 완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발원한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집행부는 거룩한 불사를 향한 33관음보살의 원력을 구심점으로 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원합니다. 33분의 보살심을 수취찬탄합니다. 부디 많은 보살께서 화현하셔서 지혜로운 여성들의 수승한 뜻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월 2일,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 입재식

다가오는 2024년 7월 2일에는 저희들의 오랜 숙원인 불교여성광장 건립 불사,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을 부처님께 고하는 입재식을 갖습니다. 불교여성광장 건립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문화에 담아 불교적 가치를 아름다운 문화로 각인시키는 불교르네상스! 저희 발원을 담은 입재식에서 많은 연꽃이 피어나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사회적 회향을 위한 정진

개발원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는 새벽 금강경 독송, 사경 모임에서는 700여 일째 새벽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2022년, 회원 단합의 필요성을 느낀 김선옥 고문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지혜장학금을 후원합니다. 여석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집행부는 4월 첫 주에 지도법사가 계시는 선림사에서 기도 700일을 회향하고 800일 기도를 입재하는 한편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위즈덤합창단과 회향 M.T.를 가졌습니다. 준비된 천도재 의식에 앞서 대중들을 위한 위즈덤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성공양은 큰 갈채를 받았습니다. 개발원 가족의 안녕을 위해 늘 기도해주고 계시는 선림사 보우법사님께 합장 올립니다.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아카데미는 108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도 불법에 기반한 전문 교육으로 회원들이 수행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술심리치료사과정, 지혜아카데미의 만다라명상, 다문화행복가족센터 법회, 명상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차와선, 불교여성연구소가 주관하는 발원문 책자 발간, 역사문화답사, 한부모 자조 모임 '좋은벗', 그리고 날란다 독서모임 등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생명존중본부가 주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참여한 분들의 숫자는 680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지켜보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합니다. 각 부서를 이끄시는 단장님, 센터장님,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올 5월 23-24일에는 개발원 주요행사인 바자가 자리하고 있고, 6월에는 세종시 영평사에서 영108 키즈 가족템플스테이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여성광장 건립 완성불사를 향한 아름다운 회향을 발원하며

7월 2일에는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 입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융복합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창조하여 자긍심으로 가득한 불교문화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갈 불교르네상스의 꿈 III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시오. 연꽃 송이송이 피어나는 입재식으로 아름다운 회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기후동행카드 반가움과 아쉬움

서울시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대중교통요금 할인 제도로 시행된 기후동행카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이 카드가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종류의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 주는 카드임에도 왜 기후동행카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모델은 독일에서 시행된 2022년 독일의 '9유로(약 1만3,000원) 티켓' 실험 흥행을 본떠 설계됐다. 독일은 이때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서 3개월간 약 180만 톤의 탄소를 감축했다. 이후 49유로 티켓(약 7만1000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용을 높임으로써 탄소감축을 이룬 효과적인 기후솔루션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까닭에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대중교통요금할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후동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교통분야에서 탄소감축 정책이 주로 자가용 이용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왔고, 지난해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올리는 등 대중교통을 강화함으로써 탄소감축을 해야 하는 기후정책과 상반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그래서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함으로써 교통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많다. 우선 기후동행카드의 금액이 62,000원~ 65,000원으로 할인율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2~30대로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단지 약간의 할인을 받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수준이라 실제 탄소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애초에 1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1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때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할인 금액이 지금보다는 더 낮아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분야 배출량은 763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송분야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일반적으로 1km 운행할 때 승용차가 210g, 버스가 27.7g, 도시철도가 1.53g쯤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수송분야 배출량을 줄이려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동행카드가 수송분야의 배출량 감축을 이끌어 내려면 좀더 큰 할인율로 유인동기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와 시군 지자체와 협의없이 시행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다행히 5월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로 더경기패스와 K패스, I패스가 도입되므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K패스는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각각 K-패스, 더(The) 경기패스, I-패스를 다음달에 출시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국토부의 K-패스와 비슷하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정 비용을 돌려준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한다.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지하철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탈 때도 쓸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미 누적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친절한 행정이 요구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K패스카드가 확대되어 수도권 이용자의 지역간 연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나,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가 40곳이 이르고 있고 이곳은 대중교통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지역들이므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같은 거리를 승용차로 갈 때보다 대중교통으로 갈 때 통행시간이 1.1배 인데, 다른 권역은 최대 3배나 오래 걸린다. 지방, 특히 도시가 아닌 지역에 산다면 자동차 사용이 불가피한 것이다. 2019년 서울의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216kg로 전국 평균(1,595kg)보다 낮았던 반면 경기 연천(7,230kg), 전남 보성(6,363kg) 등은 수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은 온실가스감축 수단이자 시민의 이동권과 관련된 공공교통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인프라 확충에 힘을 쓸 때 교통부분에서 온실가스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카드의 이름인 '기후동행카드'에 부합하려면 대중교통요금뿐만 아니라, 가스, 전기, 수도 등 다른 에너지 요금과 연계되어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가용 이용을 줄였을 때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함께 병행될 때 명실상부한 기후동행 카드가 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와 연계하여 할인 혜택을 높인다면 시민참여형 탄소감축 정책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과다 배출되고 이로 인한 지구평균기온 상승이라는 기후변화를 일으켰으며 지구평균기온이 1.5도를 넘을 경우 지구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기후협약이 성사되고 협약에 참여한 195개국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진전 원칙) 및 이행 여부 검증 계획을 세워서 지구온도가 1.5도를 유지하고 2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205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흡수량과 같아지는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모든 분야에서 탄소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붕괴를 막을 수 없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기후 위기 비상 상황이고 기후붕괴를 막을 중차대한 때이다.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모든 분야 모든 시민이 기후동행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런 까닭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버스를 볼 때 반가움이 앞선다. 

'목판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속의 청법(淸法)하는 여인을 찾아서



2014년 11월 18일에 불경 속 판화의 세계를 조명하는 동국대 특별전이 있었다. 전시된 47점의 변상도 중, 석가여래 아래 단정히 무릎 꿇고 앉은 여인의 뒷모습이 묘사된 목판 묘법연화경에서 이규봉 박사는 선대의 할머니를 만난다. 광평대군의 후손인 박사는 평소 집안의 역사, 나아가 조선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우연히 읽은 '특별전' 기사에 광평대군이 언급되자 발길이 자연스레 전시관을 향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선대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이규봉 박사는 기계 공학을 전공한 박사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을 역임한 공학자지만 그의 관심

은 책 저술로 이어져 『세종대왕 며느리는 왜 절에 갔을까?』(2018)와 『이유 평전』(2023)을 출간하였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걸어 올릴 것인가는 오늘날의 우리를 규정한다. 이규봉 박사가 만난 선대 할머니, 신씨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 후손이신 교수님께서 『세종대왕 며느리는 왜 절에 갔을까?』를 직접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2014년 11월 17일 자 조선일보에 <조선 最高 목판 변상도(變相圖), 고국서 첫 공개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일본 사찰 세이라이지(西來寺)가 소장한 조선 세조 때의 목판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이 작품은 1459년(세조 5년) 세종의 5남 광평대군(1425~1444) 부인 신(申)씨가 왕실의 안녕을 빌며 발원한 것으로 석가여래 앞에 무릎 꿇고 불법(佛法)을 구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등장하는 국내 최초의 그림이다.

을 반출해서 전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니 '광평대군' 이야기가 나와 전시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변상도나 묘법연화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전시회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저희 조상과 관련된 것에 눈길이 갔고 600년이나 된 귀중한 목판 고서본이라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 전시를 볼 때 만해도 광평대군의 부인이 출가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전시 도록을 사서 집에 가 찬찬히 읽다 보니 광평대군 부인이 출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 다시 방문해 큐레이터에게 물어보니 영가부부인 신씨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꽤 잘 알

려져 있다 하더군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니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황인규 저서)를 추천해주어, 그 책을 읽으면서 할머니가 세종대왕의 며느리이면서 비구니가 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할머니의 활동을 조명하는 논문이 많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2.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생생한 인물평전을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책을 쓰기 위한 자료는 어떻게 모으셨는지요?

황인규 저자가 『조선시대 불교계 고승과 비구니』를 쓰기 위해 참고했던 논문들을 위주로 살펴보았고 조선왕조실록을 자주 찾아봤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 관련된 기획전시들이 보이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읽었습니다. 원래는 불교를 잘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불교 교리와 역사, 상식은 알아야겠다 싶어 불교신문을 정기구독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3.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억불정책을 썼지만 왕실이 불교를 후원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과 불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선이 개국하고 50년 정도 지나서가 세종대왕 代였습니다. 아직도 일반백성들은 불교가 몸에 밴 고려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조선을 개국하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지만, 백성들한테는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양반 사대부 역시 조정에서는 불교를 배척한다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할머니, 어머니, 자기 부인,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며 생활하는데 하루아침에 유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 통하지 않았던 거죠. 특히 관직에 있지 않은 여성들은 불교를 버릴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나 건국 후 10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도 조금씩 불교를 멀리하기는 했지만, 왕실의 여성이나 일반 여성들은 계속 불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중종 때 문정왕후나 성종의 부인 정현왕후는 계속 봉원사를 키워나갔으니까요.

4. 영가부부인은 광평대군과 사별 후 비구니가 되셨고 많은 불사를 베풀어 목판본 『묘법연화경』 등의 위대한 성보문화재를 남겼습니다. 신씨 부인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평대군이 12살, 신씨 부인이 11살에 결혼해서 8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부부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씨 부인의 친정 사촌 오라버니의 부인이 신미대사 쪽 집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올케가 되는 데 지금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가족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사촌 올케와 잘 알고 지냈고 결혼 후에도 왕래가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편인 광평대군이 19살에 돌아가셨지만 왕가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재혼은 불가능했고 집에서 딱히 살림을 할 일이 없었어요. 어린 아들이 한 분 있었지만 유모가 있어 다 키우고 당신이 뭘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거죠. 그래서 아예 견성암에 상주하면서 아침저녁으로 경전을 보고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며 스님들을 모아 법회를 열고 목판 경전들을 출간한 것이 당신로서는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5. 영가부부인 신씨와 봉은사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요?

광평대군이 1444년에 돌아가시고 못자리를 여기 수도산 선릉에 쓰셨는데 그 옆에 아주 작은 견성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어요. 여기에 묘를 쓰고 나자 영가부부인 신씨가 아예 근처 견성암으로 들어와 사신 거예요. 아침저녁으로 광평대군을 천도하기 위해서 독경을 하셨는데 아주 작은 암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을 조금씩 증창한 거 같습니다. 한때는 4월 초파일 법회를 할 때 광주, 경기도 지역에서 천 명이나 와서 법당을 구경하고 공양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비구 스님 100여 명을 모아놓고 법회를 할 정도니 규모가 어느정도였겠어요. 작은 암자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겠죠. 그래서 신씨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서 크게 절을 증축했던 것 같습니다. 증축하고 화려하게 장엄도 하고 하면서 위에서 말한 목판 모법연화경, 지장경 같은 경전도 출간하고요. 또 수록제 관련된 책도 출간하고 큰 책들을 몇 종 출간했어요. 그게 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장경을 간행할 때는 자연스럽게 견성사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견성암이었다가 사격이 점점 커지면서 견성사로 바뀐 것 같아요. 그 후 성종이 죽고 성종 묘를 쓸 자리를 찾아보는데 신하들이 이곳이 왕의 못자리로서는 제일 적격이라고 하면서 광평대군 측에다 못자리를 양보해달라고 하죠. 왕릉을 쓴다고 하니까 광평대군 집안에서 비켜주고 여기다 성종의 능을 썼어요. 그후 성종 부인인 정현왕후가 견성사를 이쪽으로 옮기고 봉은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능침사찰로 정하고 많은 땅을 하사해요. 왕실의 은혜를 잘 받들라는 뜻으로 봉은사로 사명을 바꾼 것이죠. 그러니 봉은사 전신인 견성사, 견성암 시절부터 신씨 부인과의 인연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지요.

6. 한국불교에서 여성 불자의 힘은 지대합니다.

앞으로 한국 여성 불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까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 주변의 이웃들한테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광평대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에 많이 없는데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한테도 잘했다는 기록이 간혹 나옵니다. 천한 노비라 할지라도 인간답게 대해 주고 사람을 아껴주셨답니다. 바로 지금 주변의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데로도 관심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

나의 불교의 길: 재능보시와 알아차림 (손경수 안과 의사)



이번 호에는 3차 108인이자 영등포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안과 의사 손경수 선생님을 소개한다. 선생님은 백내장 등 각막질환 분야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며, 형편이 어려운 국내 외 많은 환자를 치료해 주는 봉사자이자, 생활 속 불교수행자 이시다. 병원 입구 매화나무가 꽃잎을 떨구며 은은한 향기를 풍기던 3월 마지막 주말 아침에 선생님을 만났다. 11차 108인 김안과병원 대표병원장 김용란 선생님, 이기향 원장님, 조정숙 국장이 함께했다.

불연(佛緣)을 일깨워 주신 꿈속의 나한님

저는 불교와 인연이 없었는데 제 나이 42살 때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불상에 절을 올리고 있었고, 옆에 범복 입은 분이 서 계시다가 부처님께 절을 할 때는 정성스럽게 하고 앞으로 보시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꿈이 하도 생생해서 절에 다니는 친척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목아박물관으로 저를 데려 갔는데, 놀랍게도 꿈속에서 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관장님은 아무래도 2층에 모신 나한님이 다녀가신 것 같다며 제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어떤 간절함이 저의 내면에 숨어 있다가 발현되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수행을 시작하다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불교 책을 찾아 읽었어요. 절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책부터 읽은 거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아! 불교의 핵심은 ‘보시’와 ‘내면 보기’로 귀결되는구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돈으로 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불교를 접한 지 몇 년 후에 거사님과 사별하시고 홀로 두 자녀를 키우셨음) 그래서 금전 보시가 어렵다면 내가 가진 재능을 보시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 내면을 보는 힘을 어떻게 길러갈지 생각해 보았는데 책에 ‘알아차림’을 하라고 돼 있더군요. 이때부터 저는 마음을 관조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생활할 때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습관어요. 이때부터 제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했어요. 식구들이 있어 쉽지는 않았지만요. 아이들

밥 해주고 도시락도 싸줘야 하고 환자도 봐야 했거든요. 108배를 할 때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부처님께 너무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도할 때 우리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되 맨 뒤에 ‘저의 재능을 보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라는 부처님과 의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김안과병원과의 인연, 부처님께 서원한 재능보시 약속이 실현되다



그 무렵, 저는 제가 개원한 병원을 문 닫고 다른 곳에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 날이 하루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지인이 김안과에 자리가 났으며, 원하면 토요일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휴식은 제가 가장 바라던 조건이었으므로 저는 무조건 김안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안과에 들어와서는 어떤 분야를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백내장 수술을 배워도 될까요?’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본래 저는 무척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때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개원의로 있을 때 저는 백내장수술을 해보지 않았습니

다. 그 당시만 해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했고, 인공수정체도 삽입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개원의로 일하던 15년간 해본 적이 없던 새로운 방식의 백내장수술을 배우기란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저는 백내장 수술을 배울 용기가 생겼고, 수술 중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도 불안한 내 마음을 ‘알아차림’ 한 후 치료할 환자의 눈을 대하면 안정적으로 집도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저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안과의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면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수술을 시작하면 일체를 내려놓고 수술에만 집중합니다. 저는 김안과병원으로 이직하면서 사찰에서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를 시작했고, 차츰 외국(몽골, 필리핀, 라오스, 스리랑카 등)으로 해외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김용란 선생님과 저는 2007년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에 의료봉사를 다녀왔어요. 이때는 안약과 돋보기, 간단한 안과수술만 해주고 왔기에 아쉬움이 많았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어른거렸고, 의논 끝에 우리는 이분들에게 개안수술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자마자 희한하게도 캄보디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에 수술실을 마련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회를 나가서 그 동안 백내장수술 1,918건, 외래수술 838건, 의안제공 193명, 외래진료 41,744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약 16년 동안 치료해준 환자 모두 큰 합병증 없이 완쾌되었으니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불법을 통해 인생의 전환을 할 수 있었어요. 나이 70이 되고 보니 요즘은 생각과 달리 몸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번뇌를 좀 줄이고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달

라이라마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힘이 거기에 있다.”, “나의 철학은 친절함이다. 가능할 때마다 친절하도록 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부디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지금 세대에 맞는 수행법을 개발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좋은 법을 배워 세상을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11차 108인 김용란 선생님이 본 손경수 선생님

김용란 선생님은 ...

11차 108인이자 김안과 설립자 김희수 이사장의 따님으로 현재 영등포 김안과병원 대표병원장이다. 생활 속 불교수행자이자 손경수 선생님과 함께 김안과 해외 의료봉사단을 약 20년째 이끌고 있다.

김안과병원은 ...

1962년도에 설립되었다. 병원 설립 당시 영등포에 공단이 많아 안과 위급 환자가 많이 발생하자 이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영등포에 병원을 세웠다. 위급한 환자를 위해 지금까지 휴일에도 문을 연다. ‘아이케어 휴먼케어’, 눈을 케어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밝게 만들자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으며, 하루에 약 1,600여명의 환자가 찾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안과병원이다. 라식 수술 등을 위주로 하는 여타 안과들과는 달리 중증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에서 김안과병원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안과 의료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안과 의료기관을 놓고 볼 때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많은 임상 데이터를 보유한 독보적 안과병원이다.

선생님은 저의 직장 동료로 넘어 도반이자 멘토이십니다. 선생님이 봉사단장으로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니 매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기하리만치 잘 넘어갑니다. 시엠립은 단전이 자주 발생하는데 만약 수술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천명이 넘는 사람에게 개안수술을 해주었지만 수술 끝나면 단전이 발생했지 수술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

다. 참 불가사의하지요? 저희 병원은 이런 선생님을 쫓아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거금이 드는 일이라 병원 입장에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보람이 더 큼니다. 시엠립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두 눈이 다 안 보이는 사람만 수술해주었습니다. 한 눈만 볼 수 있어도 혼자 화장실 다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식구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 그 집 전체가 사는 거죠. 성관스님이 이끄시는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에서 장소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니 저희 봉사활동도 체계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현장 도착하면 선생님은 가장 먼저 수술방부터 청소하고 비닐로 창문 막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저희가 떠난 후 환자가 염증이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고등학생 봉사자들도 같이 가는데 환자들 발 닦여서 수술방에 들여보내고 시력 재고 각종 심부름을 해줍니다. 애들도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더군요. 얼마 전 B.W.C 아이들 중에 3명이나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고아들인데, 저희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고맙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





재가여성불자의 아름다운 동행

꿈을 안은 출발

내가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회 11차에 입회한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선배 기수들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개발원의 발전을 논의하는 워크숍에 마치 학교에 입학하여 입학식에 가는 기분으로 출발하였다.

출발지점이 강북 조계사와 압구정 현대 백화점 주차장이어서 나는 강남 압구정에서 출발하는 버스 편을 이용하였다. 목적지인 양평 코바코연수원에 도착한 것은 개회 시간인 10분 전이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김옥점님의 라인댄스로 시작의 막을 열었다. 11차 108인을 환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화합하는 여성불자회가 될 것을 예감하는 아름다운 꿈이었다.



선배의 당부 말씀

개회가 되어 지난 20여 년간 발전시킨 선배들을 모신 가운데 이기향 원장님과 남동현 회장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이분들은 여성불자 108인회 창립 취지에서 보듯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므로 그 전문지식을 사회에 회향하여 불교 정신을 전파하는 데 기여해 달라는 당부였다.

특히 이기향 원장은 현재 불교여성개발원의 회원이 1,575명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주(寶珠)로 여겨 아름다운 동행을 주문하며, 산하에 10개 센터에 아카데미를 두고 활동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남동현 회장은 우리 11차 회원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얼떨결에 11차 차수장이 된 나는 신입생을 대표하여 답사(答辭)했다. 새로 입회한 것이 우리로서는 좋은 인연을 만난 출발이었지만, 그동안 팔목할 업적과 발전을 이룬 선배들의 족적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배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좀 서툴더라도 잘 이끌어 달라는 부탁으로 끝맺었다.

미래의 여성불자회

오늘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발표는 김애주 고문의 '미래를 여는 K-여성불교 플랫폼'은 여성개발원의 20여 년간 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미술전시회, 건강밥상 지킴이 활동, 명상리더쉽, 리사이클링 같은 것이 있었는데, 차세대 불자육성과 교육과 초록마을 봉사, 특히 웰다잉문화제와 생명존중운동 같은 것은 불교 정신에 잘 맞는 활동으로 보였다.

그 외에 재무에 관한 제안과 기부문화, 수익사업 같은 것은 개발원의 지속적 활동을 위하여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불교 르네상스에 대한 제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그동안 이 개인적인 불교신행 활동이었다면 조직을 통하여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것이 보다 불교 정신이 확산하여 이것이 발전하여 우리 사회에 한 줄이라도 자비 광명을 비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

다음으로는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함께 협조받는 길을 남동현 회장이 안내해 주었다. 이름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길라잡이였다. 여기서 차수장들과 센터장을 소개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설명하였다. 모두 16개 부분으로 나뉘어 회원이 참여하고 교류하면 신행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이 여러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유지해 온 선배들의 노고에 저절로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명상씨클댄스

기념촬영과 점심공양, 티타임을 가진 다음은 김점란 선생이 지도하는 명상씨클댄스 시간이었다. 주제를 '숭고한 움직임'으로 하였으니, 움직임 속에서 명상에 드는 방법을 제시하여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명상 씨클댄스는 김점란 선생님의 지도로 회원 모두가 좌우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리듬에 따라 보폭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었는데, 율동은 간절하여도 망상이 있으면 스텝이 어긋날 수 있어 선후(先後)의 걸음 수에 집중하면서 나무에 다가가니 내가 나무와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특히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느릅나무를 재생시키려는 꿈으로 만들어진 Elm Dance(느릅나무춤)는 나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방사능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을 다가가서 느릅나무와 생각을 통일하는 명상선으로 동작

하나하나에 몸과 마음이 하나 되었다. 더 나아가서 좌우, 전진, 후진 스텝을 통해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인 법 성계의 함축된 자연의 규율을 그 안에서 발견한다. 핵발전소 사고의 방사능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느릅나무와의 감응을 통한 치유의 시간은 자비와 사랑과 포용의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화염의 세계를 연상하게 했다. 오염되어 아파하는 나무와 스텝을 겸한 명상선(冥想禪) 댄싱이었다.



차수별 토론

그다음으로 차수별 토론이 있었다. 내가 속한 11차에서는 33명이 참석하였고 우리는 신입으로써 활발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미 작년 11월 24일에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여성 불자 108인 선정 모임을 했고 지난 1월 8일에 캄페르 린포체 초청법회로 신년 법회와 제6회 여성 불자 108인의 날 기념식을 통해 조금은 익숙하여졌던지라 이야기의 진행은 순조로웠다. 우리 11차에서는 자체 월례법회, 108배 수행, 남을 위한 기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 외에 재능기부로는 태극권, 한지화, 암환자식봉사, 음악심료치료, 사진봉사, 개발원 행사 참여, 지방과 회원의 연계에 관하여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1차부터 10차까지 토론된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하였다. 차수별로 주제를 정하여 '씨는 뿌리고 싹은 틔우고', '절 일은 참가가 보시다', '따로 또 같이'라는 목표 아래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활동하고자 하는 전체를 순서 없이 대강 적어보면 금강경독송회 배가운동, 염불봉사단, 스마트폰 활용법 연수, 사찰 법회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사찰 순례, 봉사단체활동, 기부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연화회조직 프로그램 참여, 템플스테이, 박물관·미술관 관람,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아침기도, 군법당 봉사, 독거노인 돌봄, 음성공양, 꽃 그림 황동 같은 것이다. 모두 적극적인 참여로 정열이 엿보였다.

마지막 프로그램

김양휘 단장의 지휘로 진행된 위즈덤 합창단의 장엄한 음성공양은 우리 모두 관음의 화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마지막 프로그램은 불보살님이 증명하신 것 같아서 저절로 사홍서원의 구절을 마음속에서 드러나게 하였다.

작은 소감

여성108인회는 불교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불교의 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평등 정신이다. 이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인 6바라밀 8정도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우바이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 먼저 108인 회원은 번뇌의 소멸을 위해 정진하며 자비 수행과 봉사(실천)는 양 수레바퀴로 움직이는 수레 같아서 탈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차 회원은 33명이 참석하였다. 이 33명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마치 33관음의 출현으로 느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행을 실천한다면 바로 관세음보살이 아닌가? 그 작은 실천으로 그 자리에서 각자 1만 원씩을 내어 33만 원을 여성개발원 발전기금에 넣기로 했다. 액수는 미미하여도 겨자씨가 작아도 싹트면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씨앗을 만든 것이다.

이제 33인이 108인이 되고, 1080인의 천수관음이 나쁠 때 지혜로운 여성 불자로 우뚝 설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함께 해야 한다. 🙏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고 행하는 여러분이 여성 붓다



지난 1월 8일 청운동 광장에는 여성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넘쳐났다.

청운동의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처음 열리는 108인의 날 기념식이었던데다 강세르 린보체의 법회에 대한 기대가 모두를 설레게 했다. 2층 지혜실과 3층 자비실을 가득 채운 여성 불자들은 린보체님의 법문에 귀 기울이며 공감의 탄성과 박수로 호응했다. 강세르 린보체는 간간이 유머를 섞어 '첫 번째 여성붓다'라는 주제로 법문에 이어 여러 불자의 질문에 지혜로운 응답을 한 후 불교여성개발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8천송 반야경 독경으로 법회를 마무리했다.

“초기 부처님 제자 중에 왕비가 있었고 이 왕비의 지원으로 부처님의 다르마가 널리 퍼졌다.”고 첫 말씀을 시작한 린보체는 이 왕비를 비롯해 많은 여성이 부처님의 다르마를 전파하는 데 훌륭한 공을 세웠다고 전했다.

“반야심경은 사리붓다와 관세음보살 간의 대화인데,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침묵할 만큼 관세음보살이 부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중국과 같은 곳에서는 반야심경을 어머니 여성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많은 여성으로도 화현하시고, 그리고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신은 백 프로 남성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느님을 남성 대명사인 'he'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붓다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100% 여성 붓다도 있고 남성 붓다도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서 태어나 인도로 와서 불법을 펼친 부처님 시대에는 여성에게 어떤 종교적 역할이나 활동도 금지하는 문화가 있었다. 부처님은 여성에게 승려가 될 수 있는 비구니의 기회를 주신 첫 번째 스승으로 출가를 허용하고 여성에게 상가를 이루도록 허락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많은 사회적 압박도 겪었다고 말한 린보체는 부처님께서는 여성이

불법을 전파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최초의 여성 붓다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린보체께서는 첫 번째 여성 붓다가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여러 각도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질문을 던졌다. 한 사람이 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신께서는 여성은 아름답게 만들고 남성은 아름답지 않게 만드셨나요?” 신은 “여성이 아름답고 남성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멍청하게 만드셨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야 남성과 사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성을 멍청하게 만들었냐는 질문에서 실소하던 청중들은 “남성이 멍청해서 여성이 멍청한 척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함께 웃었다.

다음으로 린보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지혜와 방편이다. 지혜를 언급할 때는 어머니와 같은 여성의 지혜를 언급하셨고, 방편을 말할 때는 아버지와 같은 방편이라고 했다. 금강승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 단어로 요약하는데, 그것을 애왕이라고 하며 하나는 지혜로 여성과 어머니이며, 다른 하나는 방편으로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방편이 함께 있을 때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여성 붓다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린보체는 “불교여성개발원의 회원인 여러분이 첫 번째 붓다”라고 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붓다라는 의미는 ‘잠으로부터 깨어난 자’라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활동하는 깨어난 분입니다.”

린보체는 “여러분께서는 모두 깨어나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해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부처님을 가르치고 제자가 된 계모 프라자파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아주 많은 계모께서 여러 역할을 했다고 한다. 프라자파티라는 여성은 나중에 부처님의 첫 번째 여성 제자가 되는데 그녀는 부처님을 키우고는 나중에 비구니가 되어 비구니 상가에 들어가신 분이다. 당시에는 능력이 출중하고 아주 재능이 많은 여성도 비구니가 되기는 어려웠다. 프라자파티는 왕실 가문의 여왕이었고, 부처님을 키운 어머니였기 때문에 비구니가 될 수 있었다. 이분이 비구니가 되었을 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한다.

프라자파티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비구니가 됨으로써 아주 많은 역할을 하신 분으로, 첫 번째 여성 붓다라고 할 수 있다고 린보체는 강조했다.

“이분은 스스로 첫 번째 여성 붓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붓다를 키워낸 첫 번째 여성 붓다이기도 하신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대단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은 더욱 대단합니다. 프라자파티께서는 아주 훌륭한 붓다를 키워내신 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

캉세르 린보체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전했다.

불교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차별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붓다의 가르침을 전한다면 여성도 남성도 붓다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보드가를 아시나요? 보드가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곳이지요. 많은 분이 거기를 보러 갑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드가를 갈까요? 그곳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증득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도 많은 여성이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붓다의 길로 가신다고 한다면 아주 많은 분이 여기로 오실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좋게 하시느냐에 따라 여기로 순례를 온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 불교여성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은 공헌과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부처님께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라고 전한 린보체는 덩까르 재단을 소개하면서 붓다가 되는 길을 알려주었다.

린보체는 세계 여러 곳에 덩까르를 만들어 관할하고 있는데 덩까르에서 일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여성이다. 또한 “15대 달라이 라마는 여성일 수도 있다.”는 14대 달라이 라마의 말씀을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여러 차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린보체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며 특히 지금의 불교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선에서 출발하므로 여성도 충분히 붓다가 될 수 있다는 말로 법문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질문과 응답시간에 참석한 여성 불자들은 활발하게 질문을 하고 린보체는 재기 넘치는 대답으로 좌중을 즐겁게 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경율논장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는

“은 세상에 유명한 셰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만든 요리를 다 먹어보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경제력이나 소화 능력에 따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걸 취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

“티벳에 비구니 상가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나. 그 맥이 있어야 여성 달라이 라마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계의 전승이 끊어진 건 사실이다. 다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린보체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깨달음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된다고 하면서 “마음에 분노와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곧 깨달음이다.”라고 법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린보체는 세계 어디를 가든 들고 다닌다는 8천송 반야경을 독경하며 청운동의 불교여성개발원에 머무르는 모든 생명이 가피를 받기를 참석자 모두와 함께 발원했다. 🙏





자연의 선물 연꽃

이번호는 연잎밥 식탁을 차려 보겠습니다. 사계절 자연은 셀 수 없는 각양각색의 먹거리를 제공하며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갖가지 재료로 우린 각자의 식성과 입맛에 맞는 요리로 먹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마치, 화가와 음악가가 자기만의 세계를 그림이나 소리로 표현하듯 말입니다.

연잎밥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과 태양, 바람의 도움으로 자란 백련 잎을 기본으로 하여 친환경 찹쌀과 위에 얹는 갖가지 고명(밥, 은행, 넝쿨콩, 생땅콩, 잣 등)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보자기에 싸듯 연잎으로 곱게 싸서 찜통에 찌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 냅니다. 진흙탕은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속세를 뜻하고 연꽃은 불교 진리의 빛으로 상징됩니다.

연잎도 오염되어 더러워지지 않고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로부터 음식 상태를 오래 지속시켜야 할 때 썼습니다. 여름날 먼 길 떠날 때 밥을 싸기도 하였고 꽃과 잎을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연꽃, 연잎, 열매, 씨앗(연자), 연근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지요. 사찰음식 재료로 널리 쓰입니다.

연잎의 효능

동의보감에서 연잎의 성질은 맛이 쓰며 독이 없고, 효능으로는 현리를 치료하고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악혈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만을 유발한 쥐의 실험에서 연잎 추출물을 투입했더니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고 흡수를 억제해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식이 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으며 알카로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진정, 해열작용과 함께 당뇨,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C, E와 같은 항산화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어 암, 백내장, 동맥질환 예방은 물론 노화 지연효과도 있습니다.

연잎밥 만들기

연잎밥은 찹쌀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곡식과 견과류를 올려서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친환경 찹쌀과 밥, 은행, 삶은 땅콩, 잣을 고명으로 올립니다.

잡곡을 이용해도 좋지만 흰 찹쌀이 연잎의 향과 빛깔과 특유의 찰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 ① 백련 잎을 적당한 크기로 중심에서부터 밥을 쌀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 ② 찹쌀을 3시간 물에 불려서 천일염을 조금 넣고 살짝 간을 하여 채반에서 물을 뺍니다.
- ③ 베 보자기를 깔고 찜통에 푹 찜니다.
- ④ 밥은 껍질을 벗기고 크기에 따라 4-6등분 자르고 넝쿨콩을 삶고 껍질 제거한 생땅콩, 은행, 잣 등을 준비합니다.
- ⑤ 준비한 연잎 중간에 원하는 양의(1인분 160g~180g 적당함) 찜 찰밥을 얹습니다.
- ⑥ 설명과 같은 방법으로 잘 싸서 찜통에 1시간 가량 푹 찜니다.

찜 연잎밥은 포장하여 냉동보관했다가 드실 때 처음과 같이 찜통에서 다시 찌서 드시면 좋습니다. 🍵



불교여성개발원 이사 명단



원장 **이기향**
1차108인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108인회 회장 부원장 **남동현**
6차108인
전)명문고등학교 교장



부원장 **원유자**
4차108인
한국대학생불교총동문
회상임고문



부원장 **윤정로**
9차108인
카이스트 명예교수



부원장 **이란**
2차108인
전)여여회 회장



부원장 **이정호**
2차108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
협회 수련감독치료사



부원장 **정대련**
6차108인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부원장 **피상순**
3차108인
우리사랑정신과의원 원장



이사 **강영자**
6차108인
조계사 의료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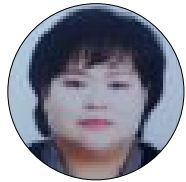
이사 **김진**
2차108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수현**
2차108인
부산선양복지원 이사
장, BTN 부산지사장



이사 **김순철**
6차108인
전)리사리패션 원장



이사 **김옥주**
7차108인
강원자원자원장, 천매갤러리대표



이사 **박원자**
5차108인
작가



이사 **손재현**
2차108인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무용)교수



이사 **안경숙**
4차108인
세명대학교 겸임교수



이사 **양정희**
9차108인
전) 봉은사신도회 감사



이사 **이영미**
6차108인
(주)세미성대표이사



이사 **이윤희**
10차108인
이윤희명상순례자요원 원장



이사 **이호옥**
8차108인
위즈덤합창단 단장



이사 **정영수**
4차108인
전)안면암운영위원장



이사 **정진희**
3차108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강사



이사 **정철재**
11차108인
도서출판 삼화 대표



이사 **최혜경**
2차108인
정법신행회 회장



이사 **황순연**
7차108인
사)한국자연생태운동공학중
앙연합회 임원



이사 **황외숙**
4차108인
전)서울교사불자연합회 회장



회계감사 **형양자**
10차108인
나복발효식품연구소 대표



업무감사 **조은수**
2차108인
전)서울대 철학과 교수

(사)지혜로운여성 이사 명단



이사장 **이기향**
1차108인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부성**
11차108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김선옥**
6차108인
전)한국불교연구원 이사



이사 **김여주**
10차108인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사 **김영희**
9차108인
청명현 대표



이사 **김외숙**
2차108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노숙령**
4차108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노인자**
5차108인
종로우수협회 대표



이사 **박종덕**
5차108인
Space 해인스튜디오 소장



이사 **안기순**
8차108인
약사



이사 **안수연**
11차108인
강원대 명예교수



이사 **양경윤**
5차108인
화가



이사 **양현정**
9차108인
도봉방학가림아카데미장



이사 **윤덕심**
9차108인
전)방배중고등학교 교사



이사 **황경자**
8차108인
전) 위즈덤 합창단 단장



이사 **이명순**
2차108인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이순재**
8차108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사 **이영주**
7차108인
이영주클랙션 대표



이사 **임순덕**
5차108인
전)NGO 자비나눔수혜곤재무



이사 **전영숙**
8차108인
연세대 중국연구원 연구원



이사 **조미환**
10차108인
강릉 영동대학교 교수



이사 **조수성**
11차108인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이사 **조희금**
2차108인
대구대 명예교수



이사 **한경란**
10차108인
전)불광사 임원



이사 **행난옥**
6차108인
크리에이티브콘텐츠&출판
나눔대표

○ 불교여성개발원 신년회 및 제 6회 여성불자 108인의 날

1월 8일 10시 30분에 청운동 불교여성광장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캄페르 린보체님을 초청해 「첫 번째 여성 붓다」 주제로 신년법회를 개최하였다. 1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린보체는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공양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는 메시지를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회원들에게 남겨 주셨다. 이어 2부에서 「제6회 여성불자108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퇴임하는 차수장께 감사의 인사와, 위촉받은 신임 차수장께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캄페르 린보체님과 인연을 지어준 정경연 고문, 찬불가로 음성공양을 해준 위즈덤합창단 단원들과 김양희 지휘자, 연잎밥 점심공양을 마련해준 최혜경 건강밥상지킴센터장, 떡공양해 준 이영미 6차 108인, 이순이 3차 108인, 사회를 맡아준 박원자 5차 108인, 현수막을 디자인한 김지영 5차 108인을 포함하여 하루 전에 행사장을 청소해준 황외숙 4차 108인, 김옥숙, 고은자 10차 108인 덕분에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 업무, 회계감사



2월 6일 마하실에서 전영숙 업무감사와 형양자 회계감사가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의 2023년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였다. 회계에 있어서 비목합계액 수정사항이 있어 2월 21일 추가 감사를 하고 감사내용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였다.

○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총회

1월 11일 마하실에서 2024년 1월 운영회의를 개최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신임·사임 임원, 신년법회 및 제6회 여성불자108인의 날 평가, 불교르네상스의꿈Ⅲ 사업, 2024년 연간 운영계획, 산하 기구장, 센터장 5개 안건을 승인하였다.

2월 1일 운영위원회, 2월 15일 불교여성개발원과 (사)지혜로운여성 정기이사회, 그리고 2월 2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2023년 사업 및 결산 승인,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신임임원 승인)을 모두 승인하였다.



○ 무량감로회 MOU 체결



1월 14일 조계사불교대학 2층에서 불교여성개발원과 무량감로회(회장 이순재, 8차 108인)와 협약식을 맺었다. 무량감로회는 전문 의료 봉사자를 활용하여 불교여성개발원과 관계 있는 불자들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무료 진료를 수행하고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를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무량감로회는 불교여성개발원 108인들 중 의료분야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였다.

○ 홍대선원 준한스님 내방

1월 22일 87호 우바이예찬 「가고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인터뷰로 인연이 맺어진 홍대선원 준한스님이 불교여성광장을 방문하여 이기향 원장, 정대련 부원장, 박원자 이사와 다담을 나누었다.



○ 안국선원 방문

1월 29일 이기향 원장, 김선옥 전임원장은 안국선원 수불스님과 천양자 회장을 방문하여 이취임 인사를 전했다. 남동현 108인회 회장, 최혜경 건강밥상지킴센터장, 정진희·전영숙 이사, 조정숙 국장이 동행하였으며, 정진희 이사는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 불교르네상스의꿈3 실행위원회 1차회의

2월 6일 바라밀실에서 10월 27일에 개최할 불교르네상스의꿈3 문화제를 위한 1차 실행회의를 가졌다. 행사 기획 취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이기향 원장의 브리핑에 이어 참석한 실행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록은 전영숙 8차 108인 차수장이 맡아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향 원장, 정대련 부원장, 홍선미 교수(삼육대), 전영숙 8차 108인 차수장, 김민지 11차 108인, 최한아 11차 108인, 조정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남인도, 스리랑카(남스) 순례 뒷풀이 모임

2월 7일 성북동 누룽지와 백숙(대표 유인순)에서 혜총스님과 남스 순례 동참자 12명이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하며 순례 뒷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2024년 해외사찰순례처인 복인도 라다크 일정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보고하였다. 유인순 대표는 순례 뒷풀이 참석자들에게 점심공양과 차를 보시하였다.



○ 행안부 공모사업, 대한불교진흥원 선정

2월 28일에 불교여성개발원이 신청한 행안부 공익사업 『청로몽: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만드는 작품집』(3천4백만원)이 선정되었다. 또 대한불교진흥원에 지원한 「여성 불자들과 함께하는 불교 예술인 8인 단체전」(300만원)도 선정되었다. 이번 행안부 공익사업 제안은 최한아(레이지 블렌더 대표) 11차 108인의 역할이 컸다.

○ 접시 기증

2월 23일 이영주 7차 108인은 다과 세팅에 필요한 고급 접시 10개를 본원에 기증하였다.

○ 문윤정 연구교육팀장 입사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사무국 이수연 연구교육팀장이 3월 22일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고, 2024년 4월 1일부터 문윤정 연구교육팀장이 출근하였다.

사무국 소식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회장 남동현, 6차 108인)

1월 4일, 2월 1일, 3월 7일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4월 4일 108인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 의결하였다.



○여성불자108인회 워크숍

3월 30일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11차 108인을 환영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전영숙 8차 108인 사회로 김애주 고문의 주제발표, 김점란 6차 108인의 명상씨클댄스, 위즈덤합창단 김옥경의 라인댄스, 유인숙의 오키나와 연주, 김양희 지휘자의 찬불가 공연이 이어졌다. 회원들의 여러 후원 물품도 답지했다.

후원품은 강경자(11차) 보톡스 시술권 20회분, 남동현(6차) 자개 찻잔 받침, 성민선(3차) 『붓다의 길을 따라』 10권, 오현숙(2차) 구운계란 5판, 이순이(3차) 떡 2박스, 이영주(7차) 스카프 2장, 이진형(11차) 초콜렛 등, 정경연(1차) 『강세르 린보체』 5권, 최희영(7차), 최수영(11차) 차와 음료, 최혜경(2차) 연잎밥 3세트, 생강청 3, 맛간장 3, 5차 108인 단체 현미잡쌀 호두누룽지 120포였다



- 8차 108인(차수장 전영숙)

3월 3일 오후 8시 줌회의로 신임 차수장 인사하고 108

인회 상반기 활동상황을 공유하였다. 전영숙 차수장을 비롯하여 양하영 회원 등 7명이 참여하였다.



-9차 108인(차수장 양정희)

2월 17일 9차 108인(차수장 양정희)

모임에 회원 12명이 참석. 점심공양을 함께하며 새해인사 나누고 신년계획을 논의하였다. 차수장은 개발원 행사를 안내하고 동참을 권유해줄 것과 자체 마련한 템플스테이(3월 8일~9일, 홍국사)에도 많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사 후 봉은사 다원에서 바자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차담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봉은사 경내 명상의 길을 걸으며 힐링하면서 뜻깊은 모임을 가졌다.



3월 8일~9일 1박 2일 양정희 차수장과 회원 7명은 고양 홍국사 「참 나를 찾아서」(체험형) 템플스테이에 동참하였다.



○교정교화센터(센터장 양현정, 9차 108인)

1월 12일 고봉중학교에서 신년법회를 하였다. 불교반 학생 19명과 담당교사 2명이 함께한 가운데 윤덕심 센터장과 준호스님이 법회를 이끌었다. 법회 이후 단주 만들기, 연꽃-복조리 만들기와 연꽃 전통 등 만들기를 하고 있어서 간식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중식과 아이스

산하기관 센터 소식

크림을 제공하는 간식 시간에 관심이 컸다. 매월 네 번째 일요일과 다섯 번째 일요일에 본원 봉사단이 법회를 이끌고 있다.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연, 10차 108인)

한부모가족자조모임인 좋은벗은 사기순 4차 108인을 리더로 총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마음도 챙기고, 몸도 챙기고』가 『좋은벗』의 모토이다. 2024년 서울시한부모가족센터의 자조모임 사업에 선정되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교육, 문화, 봉사, 교류 등 자조모임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행복가족센터에서 2명의 이주민여성이 합류하면서 한부모 교류의 장이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 9차 108인)

김홍근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한 「차와 선」 1,2에 이어 「차와 선」을 3월 4일 개강하여 5월 27일까지 총 12회 진행한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차와 선」수업은 1차 때부터 불자와 비불자를 두루 포함하는 탈종교 형식을 띤 강의로써 꾸준히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진, 2차 108인)

대한불교진흥원 공익사업인 발원문 쓰기가 마무리되어 『발원문-그대를 향한 길』 출간을 작업중이다.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재, 8차 108인)

3월 26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순재 본부장을 포함한 16명의 상담사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등록단체 상담사 심화과정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변경에 따라 전 상담사에게 변경된 양식에 맞춰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다문화행복가족센터(센터장 노인자, 5차 108인)

1월 14일, 동출스님을 모시고 신년 법회를 열어 「부처의 일대기」를 합송하였다. 회원들은 강영자 이사의 주선으로 조계사 무량감로회로 가서 진료도 받고 점심공양도 함께 나누었다. 한부모자조모임 리더인 사기순 4차 108인도 서울시에서 보내온 선물을 함께 나누었다. 3월 10일(매달 둘째 주 일요일 10시 30분~12시까지 1회씩 열림) 법회에는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이필원의 지음)』으로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까지를 읽는다.



○위즈덤합창단(단장 이호옥, 8차 108인)

2월 27일 위즈덤 단원들은 찬불가 연습 전 1시간 일찍 모여 오키나와 연습 시간을 가졌다. 3월 30일 108인회 워크숍에서 라인댄스와 오키나와 연주 그리고 찬불가를 공연했다.

산하기관 센터 소식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조명숙, 8차 108인)

3월 7일 아홉 번째 책인 『빛의 속삭임』 독서모임을 개강하였다. 첫 발표는 하수경 1차 108인이 부부의 세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날란다독서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비대면 줌으로 진행한다.

○미술 심리치료사 과정(실장 이정호, 2차 108인)

「인본주의 심리학과 놀이치료」가 큰 호응 속에 2월 16일~3월 22일까지 총 5강(10시간)이 진행되었다. 1강~4강은 오프라인과 줌 수업을, 제5강은 오프라인으로 총 14명이 실습 과정까지 마쳤다. 인본주의, 놀이치료에 관한 다양한 교재를 편집본으로 사용한다. 특히, 수강생들의 열의로 강의 후 점심공양으로 봄동 시래기국, 미역국, 떡국 등을 나누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지혜아카데미(대표 이영미, 6차 108인)

신임 이영미 대표는 2월 15일 오후 1시, 지혜아카데미 교육위원들과 3월~12월까지 강의 계획, 사업예산안 그

리고 공모사업에 지원할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 1회, 3번째 주 금요일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총 10강 강의를 기획하였다. 1강으로 임시연 11차 108인의 「만다라 명상」을 개강하였다.



○고등동복지회관(관장 김희정)



3월 5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억회상 미술치료 집단 프로그램」을 개강하였다.

미술치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며 다양한 감정을 풀어내 보는 프로그램이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한 시기부터 청년 시기와 결혼 그리고 자녀를 낳고 키우며 성혼까지 시키고 나서 현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당시의 행복했던 추억과 감정을 집단 내에서 공유하고 공감도 나누며 자신의 감정의 특성과 성향이 형성된 배경 등을 살펴보았다.

첫날은 '자기소개'의 시간으로 자신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다른 참여자에게 소개해 보는 시간이었다.



회원동정

○김인숙(1차 108인)

2월 18일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광법회 · 불광사가 주최한 「금하당 광덕대선사 열반 제25주기 추모법회」에 광덕큰스님과 생전 인연을 소개하며 스님의 큰 원력을 기리는 추모사를 하였다.



○맹난자(1차 108인), 백경임(1차 108인), 성민선(3차 108인), 문윤정(5차 108인), 정진원(7차 108인) 외 20명의 불자가 쓴 『붓다의 길을 따라』(연암서가 펴냄)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현대불교신문에 작년 한 해 연재됐던 불교인문학 글 모음이다.



○박귀원(8차 08인)



3월 13일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의 「살아있는 인생」과 인터뷰 하였다. 박귀원 108인은 “편견을 실력으로 극복하면서 의사란 원래 '봉사'하는 직업이라 생각한다”면서 춘천에서 왕복 4시간 걸려 출퇴근하면서 중앙대

에서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3월 20일 서울대 의과대학이 주최한 제 25대 함춘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성민선(3차 108인)



3월 30일 세 번째 에세이집 『날마다 전성기』를 소소담담 출판사에서 출간하였다. 책 소개에서 전성기는 찰나찰나 이어지는 영원한 지금의 현재와 미래를 품고 있는 무한한 진행을 말한다고 한다.

○우인순(8차 108인)



3월 30일 초코파이 17박스, 수량 204개를 고봉중고등학교 불교반 간식으로 후원하였다. 4월 네 번째 일요일 불교반 법회에 간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형은(8차 108인)

2월 17일 금륜사에서 샤카디타코리아 금년 정기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동안 본각스님과 조은 수교수의 뒤를 이어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스님과 샤카디타코리아를 이끌게 된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4.01.01 ~ 2024.03.31)

연명순 30,000	유옥준 90,000	1,080,000	고등동복지관 후원	진정순 100,000
왕민영 30,000	임주연 90,000	임주연(정진희 권선) 720,000	권기란 30,000	최혜경 50,000
원유자 30,000	조정숙 216,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780,000	권해영 20,000	피상순 500,000
유명숙 30,000	홍경희 288,000	조원진(정진희 권선) 0	김미영 40,000	하봉자(보우법사) 100,000
유현영 40,000		조정숙사무국장 432,000	김민경 10,000	홍경희 50,000
윤용옥 15,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최정경(이영미 권선) 1,080,000	김연성 70,000	황수경 100,000
이강희 15,000	김순자(11차) 1,080,000	형난옥(6차) 7,080,000	김지현 20,000	황순연 200,000
이미선 90,000	김연수(5차) 300,000	홍경희(2차) 432,000	김혜미 70,000	형난옥 100,000
이숙자 30,000	김정희(9차) 150,000	황규잠(정진희 권선) 570,000	김향조 20,000	5차108인회원 300,000
이승자 30,000	김종숙 30,000		김희정 1,100,000	7차108인회원 300,000
이영재 30,000	민경란(9차) 1,08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박소현 20,000	8차108인회원 300,000
이윤구 30,000	손경수 200,000	(다문화봉사단/교정교회센터/	박영숙 90,000	9차108인회원 500,000
이윤희 30,000	신진희 1,000,000	우바이예찬 /재소자영치금 / 기타)	오해진 10,000	10차108인회원 300,000
이재영(정원일) 30,000	양경윤 3,000,000	귀빈여행사(양애자) 60,000	윤정은 30,000	
이재영 30,000	유필화 10,000,000	김선옥 100,000	이선이여린이집 10,000	○ 후원해 주시는 모든
이정애 30,000	윤혜선 1,080,000	김양희 100,000	이지은 5,000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호 30,000	이인자고문 900,000	김여주 100,000	이희주 60,000	○ 기부금영수증은 1월 중순
이종열 30,000	정대련(6차) 420,000	김외숙 200,000	전유빈 20,000	이후 국제청 연말정산간소
이진수(무관스님) 30,000	정영수 10,000,000	김진 100,000	전주옥 60,000	화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이해남 30,000	정혜정(9차) 1,080,000	김형인 1,000,000	정별 30,000	바랍니다.
이화선 30,000	한채화 1,080,000	남동현 400,000	최다혜 10,000	[후원과 회원가입 안내]
임정순 15,000	함양자(11차) 1,080,000	노숙령 1,000,000	한경숙 40,000	불교여성개발원·
임주연 30,000	황규잠(정진희권선) 90,000	노인자 100,000	한정미 300,000	(사)지혜로운여성 정회원
장길수 30,000		박기옥 100,000	황화성 150,000	● 매달 1만원 이상 회비 납부인
장영선 30,000	불교여성광장건립	심문애 100,000		● 활동 센터 1개 이상
장윤실 30,000	(불교르네상스의품2) 약정 잔액	윤혜선 100,000	개발원 창립기념일 행사	선택의 기회
전미옥 30,000	강순주(원유자 권선)	이기향 1,910,100	김선옥 300,000	● 교육과 프로그램 할인
정명모 30,000		이영미 130,000	김순철 50,000	(회원활동 6개월 이상)
정숙인 90,000	권수형(4차) 360,000	이정호 100,000	김양희 100,000	● 원광디지털대학 등록금 할인
정주현 30,000	김연수 380,000	정대련 500,000	김매주 300,000	● <우바이예찬> 정기발송
정희자 30,000	김애주고문 1,000,000	정은희 100,000	김외숙 250,000	○ 가입문의 불교여성개발원
조귀자 30,000	김용숙(7차) 1,080,000	정이연 120,000	김인숙 550,000	02)722-2101~2
조여경 40,000	김인숙고문 62,315,750	조정숙 82,000	김진 100,000	[후원 안내]
조우상 30,000	김정희(9차) 750,000	황수경 90,000	김현지 100,000	○ 불교여성개발원
조정숙 40,000	김종숙 250,000		남동현 1,350,000	국민은행
진승연 30,000	김형숙(정진희 권선) 62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노숙령 1,000,000	023501-04-031123
진여스님 90,000	류인숙(5차) 420,000	권승오 180,000	박기옥 100,000	예금주 : 불교여성개발원
최비안 30,000	민경란(9차) 4,320,000	김경란 180,000	성민선 100,000	○ (사)지혜로운여성
최순진 30,000	박순(1차) 9,000,000	김여주 180,000	신명 100,000	국민은행
하양자 30,000	박원자(5차) 450,000	김옥경 180,000	양정희 100,000	023501-04-095228
한승우 30,000	배영숙(10차) 1,080,000	김옥숙 90,000	여순아 50,000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허난영 30,000	손미영(7차) 2,892,000	김재한 180,000	오현숙 100,000	○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
허영숙 30,000	손미원(9차) 80,000	서예석 30,000	원유자 50,000	모금액좌
형난옥 30,000	신병옥(신계정미소)	송은주 180,000	윤정로 50,000	농협
홍숙기(진여스님) 30,000		신지울 150,000	이기향 350,000	301-0085-6744-91
홍점례 15,000	신수영(정진희 권선) 230,000	신현옥 90,000	이영미 130,000	국민은행
황유진 30,000	양경윤(5차) 1,800,000	이순아 180,000	이윤희 100,000	023537-04-003040
	유명숙(최혜경 권선) 80,000	윤인숙 60,000	이인자 250,000	예금주 : (사)지혜로운여성
	유옥준(정진희 권선)	이호옥 180,000	이정호 150,000	(불교여성회관)
불교여성광장건립 (CMS)		이희숙 140,000	정경연 300,000	*CMS(자동계좌이체 납부)
강인영 60,000	이시구 1,080,000	장미숙 90,000	정대련 800,000	신청하실 분은 사무처로
김형숙 90,000	이영미(6차) 4,000,000	정대련 500,000	정유진 50,000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숙 90,000	이영주(7차) 6,680,000	정재선 180,000	정은희 100,000	
박원자 450,000	이영희(8차) 780,000	황경자 330,000	정진희 100,000	
손미영 360,000	이인자고문 5,400,000	황은복 90,000	정철재 200,000	
송옥순 90,000	이철호(원유자 권선)		조정숙(6차) 50,000	
신수영 30,000				